

2010년 8월 16일 보낸 편지입니다.(1,047조회)

'불혹'의 나이
'不惑'の年

조급해하지 마라,
あわてないで

늦은 나이란 없다.
遅れた年齢というのではない

나이 마흔을 '불혹'이라고 한다.
年齢40を'不惑'という

그러나 내게는 불혹이 아니라 '미혹'이었다.
しかし私には不惑ではなく'迷惑'だった

마음도 조급해졌다. 말로만 듣던 중년.
心もあわてるようになった。話に聞いていた中年

아!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지?
あ！今まで私が、なしたものは何がある？

나는 지금 잘 사는 것일까?
私はいまよく生きているだろうか？

생각이 많아져서인지 새벽잠이 많은 편인데도
考えが多くなるのか、朝寝が多いほうだが

새벽에 자꾸 깨기 시작했다.
朝よく目覚めはじめた

- 이주형의《그래도 당신이 맞다》중에서 -
- イ・ジユヒョンの<それでもあなたが合っている>より -

* '불혹'(不惑)은
* '不惑'は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どんな誘惑にもゆれないことで

'미혹'(迷惑)은 작은 일에도 바람처럼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迷惑'は小さなことにも、風のように揺れる心です

불혹과 미혹이 만나 뒤섞이는 때가 곧 40대 중년입니다.
不惑と迷惑が会って混ぜ合わされるときが、まさに40代中年です

불현듯 이른 새벽에 깨고 이불 뒤척이는 시간이
突然到る、夜明けに目覚め布団で寝返りを打つ時間が

길어지는, 그러나 인생이 깊이 영글어 가는
長くなる。しかし、人生が深く実っていく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
年齢でもあります。そのトンネルを過ぎれば

어느덧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いつの間にか、空の意味を分かる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知天命の年齢に

이르게 됩니다. 너무
到るようになります。あまり

조급해 마세요.
急がないでください

새벽-잠

[명사] 夜明け頃に寝入るふかい眠り;朝寝。

뒤-섞이다

[자동사] ‘뒤섞다’의受動:取り混ぜられる;混ぜあわされる。

불현-듯이

[부사] にわかに思い付いたことのでいたたまれなくなるの意:にわかに;いきなり;突然。

뒤척-뒤척2

[부사·하다형 타동사] しきりに寝がえりを打つさま。

영글 実る

2010년 8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1,245조회)

처칠의 정력과 시심(詩心)
チャーチルの勢力と詩心

윈스턴 처칠은
ウィンストン・チャーチルは

어떻게 보아도 역사가 낳은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다.
どのように見ても、歴史が生んだ偉大な人間の一人だ

그는 용감하고 재능 있으며, 지칠 줄 몰랐고, 굴복하지
彼は勇敢で、才能が有って、疲れを知らず、屈服

않았다. 그의 뛰어난 장점은 지혜나 판단력,
しかなかった。彼の並外れた長所は、知恵や判断力

혹은 선견지명보다는 정력에 있었다.
あるいは先見の明よりは精力にあった

처칠의 시심(詩心)도 큰 역할을 했다.
チャーチルの詩心も大きな役割をした

처칠을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チャーチルを決定的に表現する単語は

정력과 시심이다.
精力と詩心だ

- 제프리 베스트의《절대 포기하지 않겠다》중에서 -
- ジェフリー・ベストの<絶対あきらめない>より -

*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힘이 정력이라면
* 人の体を動かす力が精力ならば

시심(詩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詩心は人の心を動かす力です

정력, 곧 몸의 힘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精力、すなわち体の力があって疲れず、大きな仕事をできるが

시심, 곧 마음의 힘이 있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詩心、すなわち心の力があって、さらに大きな仕事をできます

처칠의 정력과 시심이 영국을 건져냈습니다.
チャーチルの精力と詩心が英国を救い出しました

정력 [精力]
[명사] 精力。
<1> [명사] 心身の活動力:活力。
あるいは速く、あるいは遅く → あるいは
혹은 빠르게 혹은 더디게.
건져-내다
[타동사] (沈んだものや溺れたものを)引き上げる;救い出す。

제프리 베스트(Geoffrey Best)

2010년 8월 18일 보낸 편지입니다.(1,184조회)

'저 큰 나무를 봐'
'あの大きな木を見て'

저 큰 나무를 봐
あの大きな木を見て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私たちが関係を結んだことは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 하나가
木から落ちた種ひとつが

작은 나무가 되는 일이야
小さな木になることだ

작은 나무가 자라서 우리에게 그늘 주는
小さな木が育って私たちに、日陰をくれる

저 큰 나무가 되는 일이야
あの大きな木になるんだ

한 번에 큰 나무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지
一度に大きな木は、絶対作ることができず

때에 맞게 마음 주고 말을 나누며
時にあうように、心を与え、言葉をわけながら

작은 잎새 올라오면 깊은 눈빛도 건내주며
小さな新芽が上れば、深い眼光もわたしてあげて

시간이라는 거름이 알맞게 주어지면
時間という肥やしが適当に与えられれば

우리의 만남도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라겠지
私たちの出会いも、いつか大きな木に育つだろう

- 이정숙의 시집《길을 떠나면》에 실린 시 <큰 나무를 믿다> 중에서 -
- イ・ジョンスクの刺繍《道を旅立てば》に掲載された詩<大きな木を信じる>より -

* 아무리 우람하고 큰 나무도
* いくら堂々としている大きな木も

작은 잎새, 작은 묘목에서 시작됩니다.
小さな新芽、小さな幼木から始まります。

아닙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いえ、小さな種ひとつから始まります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인연,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私たちの出会い、私たちの縁、私たちの関係もそうです。

지금은 비록 작은 씨앗, 작은 나무이지만 머지않아
今は、たとえ小さな種、小さな木だが、遠からず

하늘을 가리는 큰 그늘의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空を覆う大きな影の木として育つでしょう

보십시오! 아직은 작지만 우리 안에서
見てください! まだ小さいが私たちの中に

잘 자라고 있는 저 큰 나무를!
よく育っている、その大きな木を!

거름

[명사] 肥やし;肥料。

알:-맞다

[형용사] 適当だ;程よい;ふさわしい。

실리다1

[자동사] 掲載される。

우람-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堂々として威厳がある;雄大である。

비록

[부사] たとえ;もしそうであっても。

머지않아 봄이 온다. → 멀:다2

遠からず春が来る。

가리다2

[타동사] 覆う;遮る;隠す。

2010년 8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1,233조회)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으면
心が楽で、気分がよければ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으면
心が楽で、気分がよければ

기가 막힘없이 흐르고 몸에 밝은 기운이 가득
気が詰まらず、流れて、体に明るい機運がいっぱい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불편하고
満ちることを感じる事ができた。心が不便で

우울할 때에는 기가 어딘가 막히는 것 같고
憂鬱なときには、気がとこか詰まっているようで

몸의 기운도 어둡고 차가운 듯 느껴졌다.
体の機運も暗く、冷たいように感じられた

그러면서 모든 육체적인 병은 마음에서
それとともに、全ての肉体的病気は、心から

비롯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始まるという確信を得るようになった

- 이남순의《나는 이렇게 평화가 되었다》중에서 -
- イナムスンの《私はこんなに平和になった》より -

* 마음이 먼저입니다.
*心が始まりです

마음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心によって気分が変わります

기가 막히거나 흐르고, 몸이 좋아지거나
気が詰まったり、流れて、体がよくなったり

나빠집니다. 그래서 '마음공부'가 필요합니다.
わるくなります。だから'心の勉強'が必要です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고,
気が心を収めることが、体を収めて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世界を治めることです。

마음이 먼저입니다.
心が初めです。

2010년 8월 20일 보낸 편지입니다.(2,927조회)

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
片方の胸で愛する

내 나이 28살,
私の年は28歳

처음 유방암을 진단 받고 나서 받았던 질문은
初めて乳がんの診断を受けた後、受けた質問は

“그런데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면 “남자친구는
“ところで結婚してらっしゃいますか?” “そうでなければ” 恋人は

있으세요?”였다. 그럼 이제 연애는 어떻게 하지?
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だった。それなら、これから恋愛はどうすればいい?

결혼은? 아기는? 이런 걱정들이 들기 시작했다.
結婚は? 子供は? そんな心配を持ち始めた

그러던 와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そんな渦中に、私が知らない間に愛が

찾아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한쪽뿐인
たずねてきていた。しかし、後に片側だけの

나의 가슴을 보여주는 것도 두렵고,
私の胸を見せることも怖く

혹시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もし結婚するようになったとき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도
ご両親が反対されることも

두렵다.
怖い

- 박경희의《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중에서 -
- パク・キョンヒ<片方の胸で愛する>より -

* 28살 처녀에게 유방암이라니!
* 28才の娘に乳がんとは!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晴天の病歴のようなことです

“한쪽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片方の胸で愛することができるか?”

절망의 외마디가 가슴을 칩니다.
絶望の一声が心を打ちます

아무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もちろんです。愛することができます

한쪽 가슴이기 때문에 더 뜨겁게,
片方の胸だから、さらに熱く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욱 깊게,
痛さを分かっているから、さらに深く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愛することができます。愛は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全ての生きている人の

특권이니까요.
特権だからです

와중 [渦中]

[명사] 渦中。

<1> [명사] 水のうずまく中。

처녀 [處女]

[명사] 青天; 青空。

[명사] 処女。

<1> [명사] 未婚の女子; 娘。

외-마디

<1> [명사] 語・音節の一語; たった一声。

<2> [명사] (竹のようなものの)一節(節から節まで)。

2010년 8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582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박소영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パク・ソヨ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삶의 에너지
生のエネルギー

한 줄의 문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1行の文章が人生を変えます

책을 읽다보면 번쩍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本を読んでみれば、きらりとする瞬間が訪ねてきます

때로는 한 권의 책이 운명까지 바꿉니다.
たまには1冊の本が運命まで変えます

그 한 권의 책이 지쳐있는 내 삶에,
その1冊の本が疲れている私の生に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내 삶에
道を失って、さまよっている私の生に

에너지를 선사했고, 그를 통해
エネルギーをプレゼントして、それを通じて

어떻게 재도약 할 수 있었는지를
どうやって再跳躍できたのかを

보여주어야 합니다
見せて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 다이애나 훙의《책 속의 향기가 운명을 바꾼다》중에서 -
- ダイアナ・ホンの〈本の中の香りが運命を変える〉より -

* 이 세상은 이제
* この世の中は、もう

물질문명에서 정신문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物質文明から精神文化に移りつつあります

물질은 금융버블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고,
物質は金融バブルで私たちに警告を送っていて

자연은 환경재앙으로 더 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自然は、環境汚染でさらに大きな警告をおくっています

물질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의 가슴을 일으켜 세워줄
物質によって疲弊された私たちの胸に引き起こして、たたせてくれる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何か'が切実に必要なときです。それは

정신의 산물인 책 속에 있습니다.
精神の産物である本の中にあります。

번쩍 きらり

방황 [彷徨]

[명사·하다형 자동사] 彷徨;さまようこと;(決心などがつかず)うろうろすること;迷うこと。

도약 [跳躍]

[명사·하다형 자동사] 跳躍。

<1> [명사·하다형 자동사] とび上がること;ジャンプ。

물질 문명 [物質文明]

[명사] 物質文明。

바블 [bubble]

[명사] 버블. 거품. 허무하고 덧없이 사라짐의 비유.

재앙 [災殃]

[명사] 災殃;災難;わざわい。

피폐 [疲弊]

[명사·하다형 자동사] 疲弊;つかれ弱ること。